

# 궁궐가라



[해제]

<궁월가라>는 전적 형태의 필사본으로 18면의 단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 2단 구성으로 하여 2음보 단위로 단정하게 필사되어 있다.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자 또한 미상이다.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궁월가라>에서 ‘궁월’의 ‘궁을(弓乙)’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궁을’은 천도교에서 영부(靈符)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동학(東學)의 본질인 천심(天心)의 ‘심’ 자를 표현한 것이다. 영부의 모양이 태극(太極) 같기도 하고 활 ‘궁’자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기도 하다는 데서 유래했다. <궁월가라>는 <궁을가> 등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주 내용은 천지가 곧 개벽하여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등 계몽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구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구한말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물리쳐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깨워주고 있다. <궁을가>는 용호대사 정북창(鄭北窓, 1506-1549)에 의해 처음 보인다. 그는 조선 전기 때의 학자로서 충청도 온양 사람이다. 젊었을 적에 선가(禪家)의 육통법(六通法)을 시험해 보려고 3일 동안 정관(定觀)한 결과, 이로부터 배우지 않고 저절로 통하여 천리(千里) 밖의 일도 생각만 일으키면 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밤에도 자지않고 단정히 앉아 새벽까지 수도(修道)에 열중하였으며, 새소리, 벌레소리, 짐승소리를 다 알아듣고, 각 나라 각 지방의 말들을 배우지 않고도 통하여 알았다고 한다. 그의 절친한 친구가 3대 독자(獨子)였는데, 단명(短命)하여 곧 죽을 운명에 처하자, 자신의 수명(壽命)에서 10년을 떼어 친구에게 이어 주고, 자신은 44세의 나이로 단정히 앉은채 홀연히 이슬처럼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그가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게 되자, 장차 인류에게 닥칠 천지개벽에 대해 가사형식의 비결(秘訣)인 <궁을가>를 남겨 후세사람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에는 개벽시대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벽시대에는 새로운 문명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문]

궁월가라

천하역조 만물중에 최귀한니 인심이라  
 효조충신 으뜸이요 인의예지 직일라  
 삼강오륜 발간는디 밋을신조 근본이라  
 만고덕성 공부조도 천명밧아 횡도한니  
 천하망국 흥망스도 막비천명 이안인가  
 사원갈조 십이회에 구변구복 돌아온니  
 천지운슈 막을손야 이식상이 분분하다  
 망국병서 초모풍에 영창심이 도탄이라  
 예미지방 군자국에 외국병마 무삼일고  
 사히풍진 요란한디 부지인화 잇씨로다  
 용화오스 지은노리 천궁지를 성도하니  
 천명으로 슈도한니 센활지방 궁월이야  
 이직궁월 이른말이 천명밧아 하신베라  
 비산비슈 어디갈고 궁월지산 선경이라

낙반스유 일지거던 동낙서성 힘물시소  
이직전전 맛지말고 궁월가로 부르시소  
인구유토 외모르나 슈설전지 견조로다  
적션조는 복을주고 이악조는 죄를준니  
지공무스 천명하이 도망할조 누잇스냐  
지성으로 샬천하고 빅항지원 효조로다  
직심으로 샬군하면 빅식불망 충신이나  
효조충신 인는곳에 질병우한 범할손야  
현인군조 인는곳에 각기살기 절노업니  
궁월가 불신하며 싱할지방 엇들소야  
지령신명 모든곳에 우주간도 업나이나  
살쥬삼손 차조간들 천죄조야 면할손야  
가련후다 저빅성야 남부여디 가지말고  
∞월가로 불러보소 불샤약이 여기로다  
이한곡조 노리속에 무릉원이 지척이나  
효조충신 일삼무며 만물지화 스려지네  
이노리 두곡도이 봉네신션 절노되네  
샤인회물 하지말고 성심성역 하여보세  
군곤빈천 한을마소 시로시로 씌가인니  
보신보가 엇지할고 궁월지위 우간예라  
영웅호걸 조야중에 궁월가로 식월리라  
하지성웅 불원한니 기화방초 궁월이야  
조흘시고 궁월이야 당우일월 다시만네  
피란가는 저빅성야 궁월가로 외모르노  
궁월도슈 인화되며 강구언월 토펡이라  
얼시구나 그시디여 너와나와 노라보조  
불상하다 우리빅성 잇씩천명 하여보소  
좌선우선 팔덕한니 이썸스방 정희쏘다  
궁월성슈 조림처에 기화춘풍 절노난다  
이노리 다모르고 불리지물 우한이고  
발유악도 죄쥬하고 병난지질 병탈한디  
금옥제전 만타한들 엇지화를 면할손야  
홍모동우 이시상에 부귀공명 가소롭다  
전신슈도 하는군조 모춘삼월 조흔디에  
성경현전 만이일어 문장도덕 조컨만는  
샤롱공샹 샤엄중에 소장읍을 힘을실식  
샹경부모 위쥬하고 하울쳐조 쥬심하소  
게과쳐신 일을삼야 지성으로 슈도하면

삼지팔난 멀이가고 만복천복 절노온이  
 금마옥당 부귀각도 선조연득 어발이라  
 천척조손 복을주고 빈한조손 씨가인니  
 지성봉도 부귀몽은 지물슈심 그만두소  
 양지전달 사은전곡 선치기화 안이되나  
 전국석에 노든척성 불원철이 어이갈고  
 삼풍양척 찾지마소 살성지가 여기잇네  
 심이지녀 오리간의 좌궁우월 길니로다  
 만첩산중 사인들은 산중조미 좃타히도  
 후랑도적 불출한니 군조지손 이안인가  
 만경총파 덕히중에 소산어렵 조컨만은  
 타국병마 왕네한니 엄불지순 이안인가  
 불효불순 발악인은 지성불역 구역사라  
 심순유곡 좃타히도 가는고지 샤지로다  
 군조돌러 하늘되고 불조두어 쌍이되네  
 천문지니 인화중에 싱활지방 이곳지나  
 남녀노소 가야중에 일심으로 슈도한니  
 부모형데 화목하고 이인친척 화순하며  
 별유천지 비인간에 이곳박끼 쏘인는가  
 시인샤회 이노리가 허언인가 드러보소  
 견여공석 이노리가 적언인줄 누사알고  
 청산척운 심심쳐니 지은자랑 노리하기  
 일월진성 등참디고 천지신명 감응이라  
 구궁팔괴 시위하고 인간삼괴 분비로다  
 만슈도인 명을밧아 칙운범스 강님이라  
 열시구나 조홀시고 도제공월 조홀시고  
 모춘삼월 호시절의 톱평쥬를 취케먹고  
 톱평쥬에 놉피안조 여인득낙 하어보식  
 사이만 팔척연의 도덕현인 낫섯도다  
 한심하다 슈제들아 이곡조을 모르든고  
 조심하시 조심하시 팔무도로 조심하시  
 이십육도 조심하시 천지성쇠 이십육도  
 유신무신 이십육도 여아독심 이쳐지를  
 조금도 몰나보고 독싱독전 싱각하고  
 안싱잇조 역겨신니 하나인들 샤라날가  
 기면의 슬픈눈물 천지도 슬퍼한다  
 불상하다 창싱들아 이십육도 모르거던  
 헛된마음 니지말고 심정을 세운후의

방방곡곡 2자셔라 병든조식 남겨두고  
문을열고 나셔보니 식상도 가소롭다  
엇든조는 춤을추고 엇든조는 울음운다  
동서양 괴질운슈 식로게벽 되난이라  
괴가승희 법이되야 호열조도 무성거던  
흑샤병이 원일인고 권식있다 막아늬며  
총인들 막아늬며 갈인들 막아닐가  
기초동방 발간는디 더딘조은 외안씩나  
성주운은 들언는디 몸치조심 외안하나  
달리눅고 끼진는디 불스약의 안촌나  
천도순연 의점이 성화라  
셔인니축 지의이아 총칭이라  
천지위언 의만물리 육언이라  
각정기성 흥나각슈 기명흥라  
기횡야지 강흥고 기덕야  
저디나숙끼 이강의 인육이 샹흥야  
윤어무도 의천흥 계병이라  
닉유만방 지원만스 지원만물  
지원예라 유아천스 언이딕덕  
지성으로 강우샷토 파스픽션 천기진지 슈하시고 계후천무 궁지운하  
사포덕션 화에천성 지평이라  
기병희원 의화기 일신이라  
흥지라 천도가 여인도로 일야이심 닉기중의 순여늬  
일치할지어다

[현대역]

궁월가라

천하역조1 만물 중에 최귀2한 이 인생이라  
효자충신 으뜸이요 인의예지 제일이라  
삼강오륜 밝았는데 믿을 신자 근본이라  
만고대성3 공부자4도 천명5받아 행도6하니  
천하망국 흥망사도 막비천명7 이 아닌가  
사원갑자 십이회에 구변구복 돌아오니  
천지운수 막을소냐 이 세상이 분분8하다  
망국병서 초모풍에 억창생9이 도탄10이라  
예의지방 군자국에 외국병마11 무슨일고  
사해풍진12 요란한데 부지인화13 이때로다  
용화도사 지은 노래 천공지를 성도하네  
천명으로 수도하니 생활지방 궁월이야  
이제 궁월 이른 말이 천명받아 하신 바라  
비산비수 어디 같고 궁월지산 선경이라  
낙반사유 일지거든 동락서성 힘물시소  
이제 전전 믿지 말고 궁월가로 부르시소  
인구유토 왜 모르나 수설전지 견자로다  
적선자14는 복을 주고 죄악자15는 죄를 주니  
지공무사16 천명하에 도망할 자 뉘 있으랴  
지성으로 사천17하고 백행지원18 효자로다  
적심19으로 사군20하면 백세불망21 충신이나  
효자충신 있는 곳에 질병우환22 범할소냐  
현인군자 있는 곳에 각기 살기23 절로 없네  
궁월가 불신하며 생활지방 얻을소냐  
지령신명24 모든 곳에 우주 간에도 없나이다  
산주삼산 찾아간들 천죄자25야 면할소냐  
가련하다 저 백성아 남부여대26 가지 말고  
궁월가로 불러보소 불사약27이 여기로다  
이 한곡조 노래속에 무릉원28이 지척29이나  
효자충신 일삼으며 만물재화 사라지네  
이 노래 두 곡조에 봉래30신선 절로 되네  
세인허물31 하지 말고 성심성력32 하여보세  
군곤빈천33 한을 마소 시로시로 때가 있네

보신보가34 어찌할꼬 궁월지위 우간예라  
영웅호걸 조야 중에 궁월가로 세월이라  
하재성웅 불원하니 기화35방초36 궁월이야  
좋을시고 궁월이야 당우37일월38 다시 맞네  
피난가는 저 백성아 궁월가를 왜 모르노  
궁월도수 인화되며 강구연월39 태평이라  
얼씨구나 그 시대여 너와 나와 놀아보자  
불쌍하다 우리 백성 이때 천명 하여보소  
좌선우선40 팔덕41하니 이때 사방 정했도다  
궁월성수 조림처에 기화춘풍 절로 난다  
이 노래 다 모르고 불리재물 우환42이고  
발유악도 죄주하고 병난 죄질 병탈43한데  
금옥제전 많다한들 어찌 화를 면할소나  
홍몽동이44 이 세상 부귀공명 가소롭다  
전신수도 하는 군자 모춘삼월 좋은 때에  
성경현전 많이 일어 문장도덕 좋건만은  
사농공상45 사업 중에 소장읍을 힘을 쓸새  
상경부모 위추하고 하울처자 즉심하소  
개과자신46 일을 삼아 지성으로 수도하면  
삼재팔난47 멀리 가고 만복천복 절로 오내  
금마옥당 부귀객도 선조연득 어발이라  
천백자손 복을 주고 빈한자손 때가 있네  
지성봉도 부귀몽은 재물수심 그만두소  
양지전달 사은전곡 선치기화 아니 되나  
전곡석에 놀던 백성 불원천리48 어이 같꼬  
삼풍양백 찾지마소 살성지가 여기 있네  
심이지녀 오리간에 좌궁우월 길이로다  
만첩산중 세인들은 산중재미 좋다해도  
유랑도적 불출하니 군자재산 이 아닌가  
만경창파49 대해 중에 수산어업 좋건만은  
타국병마 왕래하니 엄불재순 이 아닌가  
불효불손 발악인은 죄성불역 구역세라  
심산유곡50 좋다해도 가는 곳이 사지51로다  
군자불러 하늘되고 불자두어 땅이 되네  
천문지리 인화 중에 생활지방 이곳 지나  
남녀노소 야삼중52에 일심으로 수도하니  
부모형제 화목하고 이인친척53 화순하며  
별유천지 비인간54에 이곳밖에 또 있는가

시인사회 이 노래가 허언55인가 들어보소  
견여금석56 이 노래가 정언57인 줄 누가 알꼬  
청산백운58 심심처59에 지은 자랑 노래하네  
일월지명60 등참되고 천지신명 감응61이라  
구궁팔괘 시위하고 인간삼괴62 분배로다  
만수도인 명을 받아 백운법사 강림63이라  
얼씨구나 좋을시고 도제공월 좋을시고  
모춘삼월 호시절에 태평주64를 취케 먹고  
태평루에 높이 앉아 여인동락65 하여 보세  
사이만 팔백년에 도덕현인 나셨도다  
한심하다 수제들아 이 곡조를 모르던고  
조심하세 조심하세 팔무도로 조심하세  
이십육도 조심하세 천지성쇠 이십육도  
유신무신 이십육도 여아독생 이처지를  
조금도 몰라보고 독생독전 생각하고  
안생있자 엮어시니 하나인들 살아날까  
기면에 슬픈 눈물 천지도 슬퍼한다  
불쌍하다 창생들아 이십육도 모르거든  
헛된 마음 내지 말고 심정을 깨운 후에  
방방곡곡 가자서라 병든 자식 남겨두고  
문을 열고 나서보니 세상도 가소롭다  
어떤 자는 춤을 추고 어떤 자는 울음 운다  
동서양 괴질운수 새로 개벽66 되나니라  
괘가 승해 법이 되어 호열자67도 무섭거든  
흑사병68이 웬일인고 권세있다 막아내며  
총인들 막아내며 갈인들 막아낼까  
기초동방 밝았는데 더딘 잠은 왜 안깨나  
성주운은 들었는데 몸체 조심 왜 안하나  
달리눅고 끼진는데 불사약 왜 안찾나  
천도순연에 점이 성화라  
서인이 축지에 이아 창생이라  
천지 위언에 만물이 육언이라  
각정기 성하나 각수 기명하라  
기행야 지강하고 기덕야  
저대나 속기이강에 인육이 사행하여  
윤어무도에 천하개병이라  
내유만방 지원만사 지원만물  
지원예라 유아천사 언이대덕

## 궁월가라

지성으로 강우사토 파사패션  
천기진지 수하시고 개후천무 궁지운하  
사포덕선 화의천성 지평이라  
기병해원에 화기일신이라  
흠재라 천도가 여인도로 일야이심 내기중에 순여나  
일체할지어다

[각주]

- 1) 천하억조(天下億兆) : 천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비유.
- 2) 최귀(最貴) : 가장 귀함.
- 3) 만고대성(萬古大聖) :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큰 성인.
- 4)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를 달리 부르는 말.
- 5) 천명(天命) : 하늘의 명령.
- 6) 행도(行道) : 도를 행함.
- 7) 막비천명(莫非天命) : 천명이 아닌 경우가 없음.
- 8) 분분(紛紛) : 어지럽게 흩날림.
- 9) 억창생(億蒼生) : 억조창생(億兆蒼生)이라는 뜻.수많은 백성.
- 10) 도탄(塗炭)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 11) 외국병마(外國兵馬) : 외국의 말.곧 외국의 군사력.
- 12) 사해풍진(四海風塵) :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 13) 부지인화(不知人和) : 사람들이 화목할 줄 모름.
- 14) 적선자(積善者) : 착한 행실을 쌓은 사람.
- 15) 죄악자(罪惡者) : 악한 행실을 한 사람.
- 16) 지공무사(至公無私) :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17) 사천(祀天) : 하늘에 제사를 지냄.
- 18) 백행지원(百行之源) : 온갖 행동의 근원.
- 19) 직심(直心) : 정직한 마음.
- 20) 사군(事君) : 임금을 받들어 모심.
- 21) 백세불망(百世不忘) : 백세토록 잊혀지지 않음.
- 22) 질병우환(疾病憂患) : 병과 근심 걱정.
- 23) 살기(殺氣) :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 24) 지령신명(地靈神命) :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천지의 신령.
- 25) 천죄자(天罪者) :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자.
- 26)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7) 불사약(不死藥) :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약.
- 28) 무릉원(武陵源) : 무릉도원(武陵桃源).세상과 따로 떨어진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9) 지척(咫尺) : 아주 가까운 거리.
- 30) 봉래(蓬萊) : 봉래산(蓬萊山).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인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31) 세인(世人)허물 : 세상 사람들의 흥.
- 32) 성심성력(誠心誠力) :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
- 33) 곤곤빈천(窮困貧賤) : 생활이 궁하고 어려움, 가난하고 천함.
- 34) 보신보가(保身保家) : 자신의 몸과 집을 온전히 지킴.
- 35) 기화(琪花) : 선경(仙境)에 있다는 아름답고 고운 꽃.

- 36) 방초(芳草) : 향기롭고 꽃다운 풀.
- 37) 당우(唐虞) : 중국 고대의 임금인 도당씨(陶唐氏) 요(堯)와 유우씨(有虞氏) 순(舜)을 아울러 이르는 말.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태평 시대로 꼽힌다.
- 38) 일월(日月) : 날과 달의 뜻으로 '세월'을 뜻함.
- 39) 강구연월(康衢煙月) : 변화한 큰 길거리에서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말.
- 40) 좌선우선(左旋右旋) : 왼쪽 오른쪽으로 둥.
- 41) 팔덕(八德) : 여덟 가지의 덕.인(仁), 의(義), 예(禮), 지(智), 충(忠), 신(信), 효(孝), 제(悌)를 이룸.
- 42) 우환(憂患) : 근심걱정.
- 43) 병탈(病頽) : 병으로 인한 탈.병을 핑계삼음.
- 44) 홍몽둥이 : 주장(朱杖)을 낫잡아 이르는 말.
- 45) 사농공상(士農工商) :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르던 말.
- 46) 개과자신(改過自新) :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됨.개과천선(改過遷善)과 비슷한 말.
- 47) 삼재팔란(三災八難) : 모든 재앙과 곤란.
- 48) 불원천리(不遠千里) : 천리길도 멀다 않고.
- 49) 만경창파(萬頃蒼波) :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 50) 심산유곡(深山幽谷) : 깊은 산속의 으스스한 골짜기.
- 51) 사지(死地) : 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
- 52) 야삼중(夜三中) : 야밤중.한밤중.
- 53) 이인친척(里人親戚) : 이웃과 친척.
- 54)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 따로 천지가 인간세사이 아님이 있다.이태백의 시[답산중인(答山中人) 에 나오는 시구임.
- 55) 허언(虛言) : 헛말.
- 56) 견여금석(堅如金石) : 서로 맺은 언약이나 맹세가 금석과 같이 단단함.
- 57) 정언(正言) :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 바른말을 함.
- 58) 청산백운(靑山白雲) : 푸른 산과 흰 구름.
- 59) 심심처(深深處) : 깊고 깊은 곳.
- 60) 일월지명(日月之明) : 해와 달처럼 밝은 총명.
- 61) 감응(感應) : 믿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에게 통함.
- 62) 삼괴(三槐) : 삼공(三公)'을 달리 이르는 말.중국 주나라 때에 조정의 뜰에 세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고 삼공이 이를 향하여 앉았다는 데서 유래함.
- 63) 강림(降臨) :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
- 64) 태평주(太平酒) : 태평한 시절에 마시는 술.
- 65) 여인동락(與人同樂) : 남과 더불어 즐김.
- 66) 개벽(開闢) :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7) 호열자(虎列刺) : 콜레라'의 다른 말.'괴질'은 콜레라를 속되게 이르는 말.
- 68) 흑사병(黑死病) :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